

# 국내 상주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교육실태와 요구도 분석

윤 형 근\* · 정 현 숙\* · 홍 금 희\* · 최 진 자\*  
정 지 윤\*\* · 이 해 욱\*\* · 강 경 식\*\*

## 1. 서 론

### 1.1 연구의 필요성

근로를 위해 ‘교체순환, 단기체류’ 조건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도 일정 기간 동안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외국인 근로자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고, 효율적인 근로 활동을 유지하며, 동료 외국인 근로자 및 한국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능력이다. 나아가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에서의 근로 경험을 자기 개발의 기회로 삼게 하여 한국의 국가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한국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국내 한국어 교육의 경우 대학기관의 정규과정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설계되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학습자 규모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여성 결혼이민자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정규적인 교육과정은 보다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취업 전 자국에서의 한국어 교육(KFL)과 취업 후 한국에서 접하게 되는 한국어 교육(KSL)의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제도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와는 달리 외국인 근로자는 사회복지서비스 차원의 한국어 교육 지원 대상이 아니며, 입국 목적도 ‘근로’에 있기 때문에 ‘직업 목적’ 또는 ‘특정 목적’ 한국어에 한정되어 다루어져 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취업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을 자격 요건으로 전제하고 있어 직업 목적 한국어로 분류되어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이하 EPS-KLT)에 대비하는 수준으로 진행되거나 입국 전 교재 개발 및 국가별 수요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등의 단편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체류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여 이주민지원센터 한국어 교실에 적절한 교육과정 및 정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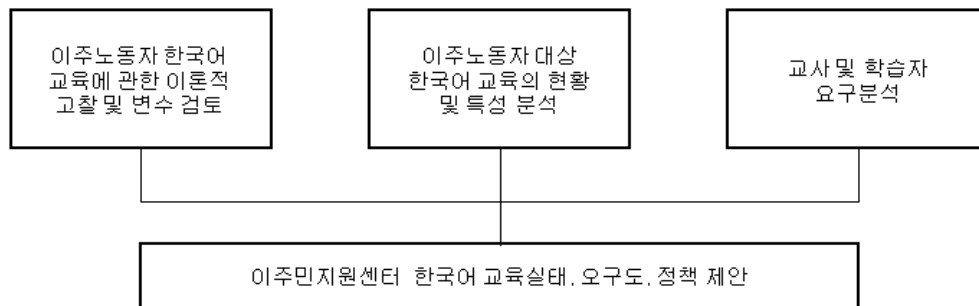
\*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국제교류경영학전공

\*\* 명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 1.2 연구절차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이주민지원센터 한국어 교육의 목적을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두고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제도와 관련한 관련 한국어 교육의 현황을 분석한다. 둘째, 체류외국인 근로자 제도 운영에 따른 단계별 교육의 특성을 도출한다. 즉, 외국인 근로자 제도의 취업절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을 3단계로 구분하여 국내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 단계의 특성을 파악한다. 셋째, 본 요구분석 결과와 선행연구의 분석을 비교 검토하여 이주민지원센터 한국어 교육과정의 특성을 도출하고, 이주민지원센터 한국어 교실에 적절한 모듈형 교육과정의 기본 개념을 정리함으로써 기존 교재를 선정하여 교수요목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국내 한국어 교육의 큰 축을 이루는 정규과정과 이주민지원센터 한국어 교실의 현황과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이주민지원센터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시 고려해야 할 정책적 사항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절차

## 1.3 조사대상 및 내용

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해 질문지는 최혜진(2011), 빈동경(2011), 김남주(2011)의 연구를 참조하여 총 38개 문항으로 본 연구에 인용하였다. 문항의 구성은 5점 척도 질문과 주관식 단답형으로 구성하였다. 질문지 내용은 일반적 사항 10문항, 교재 7문항, 교육과정 8문항, 의사소통상황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질문지 문항의 영역과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질문지 문항의 구성과 내용

문항 구성	문항 내용	문항 수
일반적 사항	학습 동기, 학습 기간, 학습 방법, 수업 만족도	10
교재	교재의 장점, 단점, 모국어의 번역과 발음표기, 직업현장 어휘 습득 여부	7
교육과정	수업 방법과 활동, 피드백 종류, 과제시간, 평가	8
의사소통상황	자주 사용하는 언어기능, 어떤 상황에서 한국어가 가장 필요한가	3

본 조사내용은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면서 한국어센터를 이용하는 체류외국인(캄보디아: 21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들이다. 설문지 조사 시기는 2010년 6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로 매주 방문하여 조사한 것이다. 통계방법은 백분율, 평균 등의 빈도분석을 사용하였다.

## 2. 외국인 근로자 체류 현황 및 유형

### 2.1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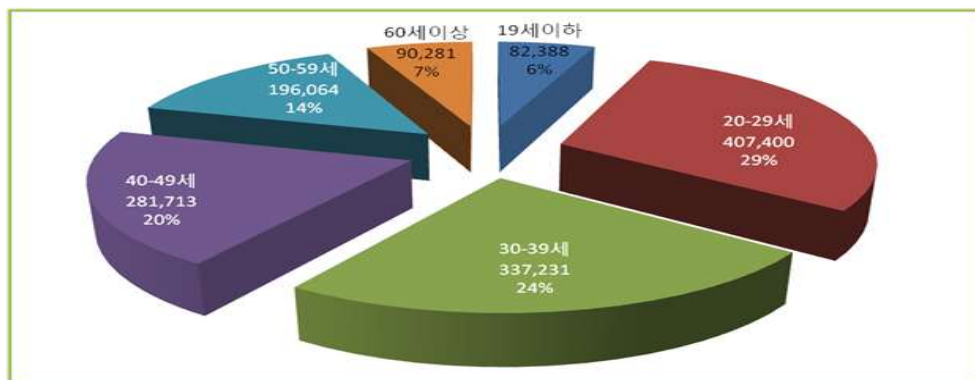
체류외국인의 실태는 <표 2>, <그림 2>, <표 3>과 같다. 2011년 12월 국내 체류 총 외국인은 1,395,077명이고, 등록 외국인은 982,461명으로 2010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20대, 30대 순으로 많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적별로는 중국, 미국, 베트남 순이었다.

<표 2> 체류외국인 연도별 증감추이

(단위: 명)

연 도	총 계	등록외국인	단기체류외국인	거소신고
2001년	566,835	229,648	322,451	14,736
2002년	629,006	252,457	357,340	19,209
2003년	678,687	437,954	218,426	22,307
2004년	750,873	468,875	259,464	22,534
2005년	747,467	485,144	236,958	25,365
2006년	910,149	631,219	249,542	29,388
2007년	1,066,273	765,746	266,011	34,516
2008년	1,158,866	854,007	263,402	41,457
2009년	1,168,477	870,636	247,590	50,251
‘10년 12월	1,261,415	918,917	258,673	83,825
‘11년 12월	1,395,077	982,461	277,596	135,020
증감률(%)	10.6	6.9	7.3	61.1

자료: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연구, 통계 월보 2011년 12월호



자료: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연구, 통계 월보

<그림 2> 체류외국인 연령별 분포 (2011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상주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교육실태와 요구도 분석  
윤형근·정현숙·홍금희·최진자·정지윤·이해욱·강경식

<표 3> 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

(2011.12.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b>총계</b>	<b>1,395,077</b>	<b>1,227,297</b>	<b>167,780</b>
중국(한국계포함)	677,954	610,920	67,034
한국계	470,570	453,286	17,284
미국	132,133	124,657	7,476
베트남	116,219	97,343	18,876
일본	58,169	56,933	1,236
필리핀	47,542	35,679	11,863
타이	45,634	31,539	14,095
인도네시아	36,971	31,253	5,718
우즈베키스탄	29,742	24,714	5,028
몽골	28,634	18,966	9,668
타이완	26,316	25,366	950
캐나다	21,812	21,098	714
스리랑카	21,554	18,939	2,615
캄보디아	17,320	16,006	1,314
방글라데시	13,465	8,486	4,979
네팔	13,256	11,497	1,759
러시아	10,547	9,469	1,078
파키스탄	10,341	6,968	3,373
오스트레일리아	9,711	9,382	329
인도	7,500	6,299	1,201
미얀마	6,479	5,293	1,186
영국	6,382	6,270	112
홍콩	5,398	5,185	213
뉴질랜드	3,858	3,682	176
기타	48,140	41,353	6,787

자료: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연구, 통계 월보2011년12월호

## 2.2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 기관

한국어 교육 실태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학문 목적의 한국어 교육이 대학(기관)의 정규과정으로 운영되는 것은 쉽게 현황 파악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이루어지는 비학문 목적의 한국어 교육은 개인지도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서 현황 파악이 쉽지 않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기관만이 정식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지금까지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교육은 주로 인권보호 단체와 선교단체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기관 및 단체 현황을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기관 및 단체  
(한국어세계화재단 홈페이지 한국어교육기관에 제시된 관련 단체이다.(www.glokorean.org))

기관명	지역	한국어 교육 현황
왕성 외국인 교회	서울	매주 일요일 예배 후/한글반 운영
서울 외국인근로자 선교회	서울	매주 일요일/신청자에 한하여 1시간 교육
갈릴리 교회	서울	매주 일요일 13:00-14:00/초·중급
서울 조선족 교회	서울	
서울 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서울	
회년 선교회	서울	매주 일요일 16:00-18:00/초·고급
동안 교회	서울	매주 일요일 11:30-12:30/교인대상 1:1 교육
푸른 시민 연대	서울	매주 일요일 12:00-17:00/초·고급
조선적 복지선교센터	서울	
성동 외국인근로자센터	서울	매주 일요일 10:30-18:30/기초, 초·고급
왕십리 교회	서울	
천주교서울대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서울	매주 일요일 14:00-16:30/기초, 초·중급
한국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서울	매주 토·일 14:00-20:00/기초, 초·고급
온누리미션	서울	매주 일요일 13:00-14:00/초·고급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서울	매주 일요일 2시간 초·중급
라파엘 클리닉	서울	
새문안교회 해외선교부	서울	매주 일요일 13:00-15:00/베트남 근로자 대상
서울 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	매주 일요일 14:00-16:30/수강료 1만원
성서교회	서울	매주 일요일 14:00-15:30/초급
선한 이웃클리닉	서울	
장충 교회	서울	매주 일요일 12:00-13:00
외국인선교회(중산 교회)	경기	매주 일요일 15:00-16:00
한길 교회	경기	매주 일요일 15:00-17:00/초·고급
김포 외국인근로자의 집	경기	매주 일요일 10:00-11:00, 14:00-15:00/초·중급
외국인노동자 살림의 집	경기	현재 진행되지 않음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	경기	매주 일요일 10:30-12:00, 13:30-15:00/초·고급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경기	매주 일요일 14:30-17:00/ 1:1교육
천주교 수원교구 이주노동자목앰마우스	경기	매주 일요일 13:30-17:00/초·고급
안산 외국인노동자센터	경기	매주 일요일 14:00-16:00/기초, 초·중급
안양 전진상복지관 이주노동자의 집	경기	매주 일요일 14:00-16:00/초·중급
희망선교회	경기	매주 수요일 10:00-12:00/초·중급
의정부 외국인근로자 선교센터	경기	매주 일요일 14:00-16:00/초급
송우리문화센터	경기	
광주 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	
외국인근로자선교회	광주	
대구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구	매주 일요일 13:00-14:00/ 초·중급
빛세계선교회	대구	매주 토요일 17:00-/직접 방문하여 교육
대전 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	노동자 집 방문하여 주 1-2회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부산	매주 일요일/기초자모반, 초·중급
송의교회 외국인근로자선교회	인천	매주 일요일 12:30-13:45/초·중급

**국내 상주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교육실태와 요구도 분석**  
**윤형근·정현숙·홍금희·최진자·정지윤·이해욱·강경식**

기관명	지역	한국어 교육 현황
부개동교회	인천	매주 일요일 13:00-14:00/초급
인천 카톨릭 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인천	매주 일요일 14:00-16:00/초·중급
양산 외국인노동자의 집	경남	매주 일요일 14:00-16:00/초·고급
경남 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남	매주 일요일 14:00-17:00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경남	실시 예정
구미 카톨릭근로자센터	경북	매주 일요일 국가별로 1시간(12시-5시)
천안장로교회	충남	매주 일요일 14:00-15:00/초·급
진천 외국인형제의 집	충북	매주 일요일 국가별로 1시간(2시-5시)
진천 중앙장로교회	충북	매주 일요일 예배 후 1시간/초·중급

### 2.3 한국어 교육기관 현황에 대한 문제점

위에서 제시한 기관과 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교육은 인권보호와 선교에 주목적을 둔 기관과 단체에 의해 부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둘째, 교육기관은 주로 서울과 경기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셋째, 한국어 학습은 대부분 주말학교 형태로 일일 학습시간은 1-3시간이다.

넷째, 한국어 교육의 교사는 주로 무보수의 자원교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자원교사의 경우 무보수에 의한 책임의식의 결여로 지속적인 한국어 교수를 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잦아 안정된 교육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오랫동안 자원봉사를 해 온 한국어 교사의 말에 의하면 위의 단체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교육에 따른 보수를 받지 못하므로 이로 인한 책임의식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순수한 봉사 의식을 갖고 자원하기보다 한국어 교사의 경력을 얻기 위한 취업 전의 실습 단계로 생각하고 자원한 교사가 많이 있어 이동이 잦고 이로 인해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였다.)

다섯째,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교재는 없고 기존의 법용 교재를 복사하여 활용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교재를 통해 직업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3.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 현황과 특성 분석

#### 3.1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와 한국어 교육 현황 분석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제도적으로 정착한 것은 1993년 도입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제도’ 및 2004년 제정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서이다(2007년 고용허가제로 통합됨.)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학습 경험은, 크게 입국 전 단계(자격 취득 준비, 이주노동자모국 한국어 교육기관), 취업 후 사전교육 단계(입국 전후, 한국산업인력공단 프로그램), 취업 중 단계(입국 후, 국내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로 구분할 수 있다(취업 중 단계에 귀국 준비반, 한국어 고급과정 등의 학습 단계 설계도 가능하지만, 본 연구는 고용허가제 취업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에 대해 살펴보는 바, 3단계로 한정하였다).

<표 5> 이주노동자 제도별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학습 기회

구분	산업연수생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최초 한국어 접근	-	현지 교육기관 등을 통한 개별 · 자율학습으로 한국어 능력 배양	
입국 전 한국어 교육 관련제도	현지 기관 선발	EPS-KLT 응시 및 선발	B-TOPIK 응시 및 선발
	사전 교육150시간 (한국어 80시간)	사전 교육(소양 교육 35시간, 기능 교육 50시간) 내에 한국어(15시간) 포함	사전 취업 교육 중 한국어 교육 15시간
입국 시 취업 교육	20여 시간의 국내 취업교육 중 한국어 교육 3-4시간		
근로 중 한국어 교육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종교단체, 지자체 산하기관, 시민단체 등의 한국어 교육과정 - 주 1회 2시간 남짓의 교육시간, 자율적 참여		

## 3.2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 단계별 과정

### 3.2.1 입국 전 단계

외국인 근로자 제도는 국가 간 MOU 체결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15개국(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파키스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과 MOU를 체결하여 2011년 12월 기준 21만 4,105명(비전문 취업 비자 소유자(E-9 비자 소유자, H-2 비자 소유자 제외). 이 중 합법체류자는 17만881명이다. 체류 외국인 총수 및 고용허가제 단순 기능 인력은 김정숙 (2001: 10)에서 인용한 것을 참조)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여 근로 중이다.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근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취업절차를 거친다.(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통합서비스 참조. <http://eps.hrdkorea.or.kr/e9/user7employment/employment.do?method=employProcessLabor>)

○ 한국어 시험 준비-> 국어능력시험 공고 및 신청·접수->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 통보 및 건강 검진·구직 신청 안내-> 구직자 명부 작성 및 전송-> 한국에 있는 사용자의 구직자 선택-> 사업자 선택 구직자 명부 전송-> 근로계약 체결: 이주노동자가 송출기관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후 근로계약 체결의사 전달 및 근로계약 체결

### 3.2.2 취업 후 사전 교육 단계

근로 계약 체결 후 외국인 근로자들은 취업과 관련하여 입국 전후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통합서비스 참조. <http://eps.hrdkorea.or.kr/e9/user/employment/employment.do?method=immigrationLabor>)

- 사전 교육 실시: 현지 사전교육기관에서 한국 취업 관련 기본 교육 이수
- 사증 신청·발급: 송출기관이 사전교육 이수자에 대해 비자(E-9) 신청
- 입국 가능 여부 통보 및 입국자 확정
- 이주노동자 입국: 송출기관의 안내 하에 최종 입국 확정자 지정 일자 입국
- 이주노동자 취업 교육 및 인도: 입국 즉시 취업 교육기관으로 이동 및 취업 교육 이수. 취업 교육기관에서 건강 검진 재실시. 건강 검진 불합격 시 본국 강제송환. 취업 교육 이수자는 근로 계약 체결 및 사업장 배치



### 3.2.3 취업 중 단계

최근 한국어능력시험반을 개설하는 기관이 증가하는 현상도 미래 대비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학습자 경험의 단계별 특징을 정리해보면 <표 6>과 같다.(최혜진(2009),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와 한국어 교육의 과제”, 『한말연구』 25권, 한말연구학회.)

<표 6> 이주노동자 한국어 학습의 단계

	1단계	한국어 능력 시험	2단계	3단계
시기	·최초 한국어 학습		·취업 확정, 입국 전후	·근로 중
목적	·한국어 습득 ·자격 취득		·한국 생활 적응 준비 ·업무 적응 준비	·언어 능력 향상 ·문화 이해도 향상
내용	·기초 한국어 ·직업 목적 한국어 ·의사소통을 위한 생활 · 문화 교육		·기초 한국어 ·직업 목적 한국어 ·생활 문화 교육 ·업무 관련 학습	·한국어 등급별 교육 ·일반 목적 한국어 ·한국의 전통,문화 교육
교육 기관	·현지 교육기관 (대학 및 사설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기타 한국어 교육단체
학습 환경	·학습자 모국(KFL)		·한국(KSL)	·한국(KSL)
교육 유형	·선택 교육 ·개별 교육		·필수 교육 ·집단 교육	·선택 교육 ·개별 교육
단계 성격	·자격시험 준비 단계		·산업인력공단 교육 ·취업 전 교육	·이주민지원센터 등을 통한 선택적 학습 단계
목적	·직업 목적, 일반 목적		·직업 목적	·일반 목적
등급	초급(1~2급)			초급(1~2급), 중급(3~4급)

### 3.3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 특성분석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한국어 교육은 학습 주기와 학습 시간, 학습 기간 등의 과정 운영상의 특징에 따라 정규과정과 비정규과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은 비정규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표 7>에서는 정규과정과 비정규과정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7> 한국어 정규과정과 비정규과정의 특성 비교

구분	정규과정	비정규과정(외국인 근로자)
투입시간	- 주 20시간	- 주 2시간 내외
교육기간	- 10주	- 20주 내외
수업료	- 150만원~160만원	- 무료
교재	- 해당 대학기관 개발 교재 - 타 대학기관 개발 교재	- 대학기관 개발 교재 - 일반 교재 - 이주노동자 대상 개발 교재 - 여러 교재 혼합 사용 등
대상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	- 외국인근로자 및 기타 이주민
교육기관	- 대학 부설기관	- 지역 이주민 지원센터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특징	- 기관별 교육과정에 의해 교수 - 대학기관의 교육과정에 의해 학습자의 언어 숙달도 등급화 - 교육과정에 의해 체계적, 지속적인 단계별 학습 가능 - 단기간에 언어 능력 향상 가능 - 학습자의 학습 여건이 유사함 - 진학 시 학점 부여 등의 혜택이 있음	- 기관별 교육과정 없음(교재 중심) - 학습자 상대 평가에 의해 등급 결정 - 체계화된 교육과정이 없어 언어 숙달도면에서 학습이 불연속적임 - 학습 주기가 길고 주당 학습 시간이 적음 - 일정 목표 수준 도달에 많은 시간 소요됨 - 학습자의 학습 여건이 이질적임.

### 3.4 한국어 교육 문제점 및 개선점

첫째, 교육 목적의 문제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외국인들에게 한국 생활의 적응을 돕자는 데 있다. Omaggio(1993)는 ‘언어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목표의 문화에서 접할 가능성이 높은 언어 기능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했다(김정숙 (2001: 10)에서 인용함). 그러므로 외국인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하나 기업이나 종교단체에서는 그들의 이익에 맞는 언어만을 가르치려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다.

둘째, 수업 장소의 문제점이 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여러 단체는 제대로 된 학습장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좁은 사무실 한 쪽을 빌리거나, 식당을 빌려서 수업을 하는 곳도 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기관 중에서 한국어 공부를 위해 정해진 교실이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로 인해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나 배우는 학습자들은 안정적으로 공부하기가 쉽지 않다.

셋째, 학습 교재와 학습 과정의 문제점이 있다. 현재 한국어 학습자들은 국적 뿐만 아니라 연령, 환경, 학습 목적 등이 너무나 다양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학습자들에게 각자 개인에게 알맞은 교재는 없다. 그러므로 적절한 교육 방법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학습자들은 일괄적이고, 포괄적인 교재를 사용할 수 밖에 없으며,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학습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다양한 학습자들로 인해 교사가 계획한 학습 계획에 맞게 수업 진도를 맞추기가 어렵다. 따라서 한국어 수업이 가능한 많은 자원교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넷째, 교육평가의 문제점이 있다. 교육을 하면 반드시 평가를 실시하여 부진한 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아 지도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도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기 때문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어 교육을 받은 외국인과 받지 않은 외국인의 분명한 차이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시간의 문제점이 있다. 한국에서 지내는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으려면 한국어 공부는 그들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은 평일 늦은 오후나 주말을 이용하는 시간에 자주 실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의 학습 참여율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대부분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설령 직업이 없다하더라도 위와 같은 시간대에 교육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학습 참여율은 점점 더 낮아 질 것으로 보인다.

## 4.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 요구분석

### 4.1 일반 항목 분석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한국어 학습에 관한 일반적인 요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습 동기, 학습 경험, 학습 기간, 학습 방법, 수업 만족도, 현재 수준, 목표 수준, 희망 학습 시간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표 8>과 같다.

<표 8>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일반적 내용

구분		빈도(명)	백분율(%)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	직업상의 이유로	10	50
	한국사회적응을 위해	3	15
	여가선용 및 취미활동	5	25
	무응답	2	10
모국에서의 한국어 학습 경험 여부	경험 있다	18	90
	경험 없다	2	10
한국어 학습 기간	1년 미만	12	60
	2년 미만	4	20
	3년 미만	2	10
	3년 이상	2	10
한국어 학습 방법	센터나 학교 등에서 수업	6	30
	혼자서 책을 보고 공부	14	70
한국어 학습 장소	직장	1	5
	전담기관(학교)	10	50
	기숙사	8	40
	무응답	1	5
학습할 수 없는 이유	시간이 없다	19	95
	공부할 장소를 모른다	1	5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은 “직업상의 이유(10명, 50%)”, 모국에서의 한국어 학습 경험 여부는 “경험 유(18명, 90%)”, 한국어 학습기간은 “1년 미만(12명, 60%)”, 한국어 학습 방법은 “혼자서 책을 보고 공부(14명, 70%)”, 한국어 학습 장소는 “전담기관(10명, 50%), 기숙사(8명, 40%)”, 학습할 수 없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19명, 95%)”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어 수업의 도움 정도는 “매우 도움이 됨(18명, 90%)”, 학습자가 인지하는 한국어 수준은 “중급(16명, 80%)”으로 실제 수준보다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원하는 한국어 수업 시간은 “일주일에 평균 3.83”이었다.

## 4.2 교재에 관한 요구 분석

교재에 관한 학습자들의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교재의 수, 교재를 통해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캄보디아어로의 번역과 발음표기, 직업현장 어휘 습득 여부, 교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요구를 조사한 결과 <표 9>와 같다.

<표 9> 교재에 대한 요구

구분		빈도(명)	백분율(%)
교재의 도움 여부	도움이 되었다	18	90
	도움이 되지 않았다	2	10
캄보디아어로의 번역 요구	번역이 필요하다	18	90
	번역이 필요하지 않다	2	10
캄보디아어로의 발음 표기 요구	필요하다	16	80
	필요하지 않다	4	20
직업 현장 어휘 습득 여부	어휘가 습득 되었다	16	80
	어휘가 습득 되지 않았다	4	20
교재의 장점	문법 설명이 자세하다	12	60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이다	4	20
	이해하기 쉽다	1	5
	무응답	3	15
교재의 단점	직업 관련 어휘가 부족하다	9	45
	혼자 공부하기 어렵다	7	35
	무응답	4	20

학습자가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는 “1~2권”, 사용하고 있는 교재의 도움 여부는 “도움됨(18명, 90%)”, 캄보디아어로 교재 번역 필요 여부는 “번역 필요함(18명, 90%)”, 캄보디아어로 발음 표기 기재 필요 여부는 “표기 필요함(16명, 80%)”, 직업 현장 어휘 습득 여부는 “어휘 습득됨(16명, 80%)”, 교재의 장점은 “문법 설명이 자세함(12명, 60%)”, 교재의 단점은 “직업현장에서 사용할 만한 어휘가 부족하다(9명, 45%)”, “혼자 공부하기 어렵다(7명, 35%)”로 나타났다.

## 4.3 교육과정에 관한 요구 분석

교육 과정에 관한 학습자들의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수업 방법과 활동, 한국어의 어려운 영역, 교사의 사용 언어, 피드백 종류, 과제 시간, 평가받고 싶은 영역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 10>과 같다.

**국내 상주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교육실태와 요구도 분석**  
**윤형근·정현숙·홍금희·최진자·정지윤·이해욱·강경식**

학습자가 원하는 한국어 수업 형태는 “개인지도(9명, 45%)”, 수업활동의 선호도는 “강의(8명, 40%), 일 대 일 대화(7명, 35%)”, 교사가 사용하길 원하는 언어는 “한국어와 캄보디아의 병행(19명, 95%)”, 원하는 피드백 방법은 “즉시 공개적으로 수정(16명, 80%)”, 한국어 과제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두 번 이하(12명, 60%)”, 한국어 수업시 학습자가 원하는 평가방법은 “회화시험(11명, 55%)”로 나타났다. 또한, 한 단계를 몇 주안에 도달하기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평균 9.5개월”이었으며, 나이에 따라서는 40세 이상은 한 단계를 평균 13.5개월을 원했고, 23-30세는 한 단계를 평균 7.5개월 원하고 있어 나이에 따라서 한 단계를 마치기 원하는 속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11>과 같이 학습자는 말하기 75%, 문법 70%, 듣기 65%, 어휘 45%, 읽기 40%, 쓰기 10% 순으로 한국어를 어려워하고 있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단어, 문법, 말하기, 듣기 영역은 많이 사용하는데 반해 쓰거나 읽기 영역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

구분		빈도(명)	백분율(%)
수업방법	개인 지도	9	45
	소그룹 지도	4	20
	교실 수업	5	30
	온라인 수업	1	5
수업활동	강의	8	40
	일 대 일 대화	7	35
	작 활동	3	15
	토론	1	5
	무응답	1	5
교사의 언어 구분	한국어와 캄보디아의 병행	19	95
	캄보디아어만 사용	1	5
피드백 유형	오류발생시, 즉시 공개 수정	16	80
	오류발생시, 추후 개인적으로 수정	1	5
	오류발생시, 스스로 수정	3	15
과제 소요 시간	매일	1	5
	일주일에 세 번 이상	4	20
	일주일에 두 번 이하	12	60
	과제할 시간 없다	3	15
평가방법	회화시험	11	55
	쓰기시험	4	20
	어휘시험	4	20
	무응답	1	5

&lt;표 11&gt; 한국어의 어려운 영역

	아주 쉬움	조금 쉬움	보통	조금 어려움	매우 어려움
① 어휘	0(0%)	2(10%)	9(45%)	4(20%)	5(25%)
② 문법	0(0%)	2(10%)	4(20%)	8(40%)	6(30%)
③ 말하기	0(0%)	1(5%)	4(20%)	7(35%)	8(40%)
④ 듣기	0(0%)	1(5%)	6(30%)	6(30%)	7(35%)
⑤ 쓰기	2(10%)	5(25%)	10(50%)	2(10%)	0(0%)
⑥ 읽기	3(15%)	2(10%)	7(35%)	6(30%)	2(10%)

#### 4.4 의사소통 상황에 대한 요구 분석

의사소통 상황에서 한국어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학습자의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회사에서 한국어로 가장 많이 대화하는 상대, 자주 사용하는 언어기능, 어떤 상황에서 한국어가 가장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lt;표 12&gt; 대화상대

구분	빈도(명)	백분율(%)
직장 동료	18	90
직장 상사	1	5
캄보디아 사람	1	5
계	20	100

&lt;표 13&gt; 자주 사용하는 언어 기능

	거의 사용하지 않음	가끔 사용	보통	자주 사용	매우 자주 사용
① 말하기	1(5%)	3(15%)	4(20%)	6(30%)	6(30%)
② 듣기	1(5%)	1(5%)	5(25%)	7(35%)	6(30%)
③ 쓰기	4(20%)	5(25%)	4(20%)	6(30%)	1(5%)
④ 읽기	4(20%)	7(35%)	5(5%)	3(15%)	1(5%)

회사에서 한국어로 가장 많이 대화하는 사람은 “직장동료(18명, 90%)”, 자주 사용하는 언어기능은 “듣기(13명, 65%), 말하기(12명, 60%)”였다.

<표 14>는 학습자들이 한국어 의사소통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것으로, 이 상황을 (1) 직업과 관련된 의사소통, (2)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의사소통, (3) 일상생활에서 선택적인 의사소통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보았다.

국내 상주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교육실태와 요구도 분석  
윤형근·정현숙·홍금희·최진자·정지윤·이해욱·강경식

<표 14> 한국어가 필요한 상황

문항	별로 필요없음	가끔 필요함	필요함	자주 필요함	반드시 필요함
1.구인 정보를 얻을 때	0(0%)	3(15%)	1(5%)	5(25%)	11(55%)
2.취직을 위해 면접을 볼 때	0(0%)	4(20%)	3(15%)	4(20%)	9(45%)
3.직장에서 일과 관련하여 상사, 동료, 아랫사람과 이야기할 때	2(10%)	0(0%)	0(0%)	7(35%)	11(55%)
4.임금 체불, 부당 노동 행위 등에 대해 상사에게 항의할 때	0(0%)	2(10%)	2(10%)	3(15%)	13(65%)
5.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무지를 고발/신고할 때	0(0%)	2(10%)	4(20%)	1(5%)	13(65%)
6.이주노동자 상담소에서 상담을 할 때	2(10%)	4(20%)	3(15%)	2(10%)	9(45%)
7.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에 가입하거나 산업재해 보상을 받고자할 때	0(0%)	1(5%)	5(25%)	1(5%)	13(65%)
8.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갔을 때	0(0%)	6(30%)	3(15%)	1(5%)	9(45%)
9.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할 때	0(0%)	2(10%)	7(35%)	1(5%)	10(50%)
10.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0(0%)	1(5%)	3(15%)	6(30%)	10(50%)
11.병원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와 이야기할 때	0(0%)	3(15%)	4(20%)	5(25%)	8(40%)
12.약국에서 약을 살 때	1(5%)	3(15%)	6(30%)	1(5%)	9(45%)
13.한국인 동료나 상사에게 자국의 문화에 대해 설명할 때	0(0%)	7(35%)	4(20%)	2(10%)	7(35%)
14.한국인 동료나 상사에게 자신의 종교에 대해 이해시킬 때	2(10%)	6(30%)	5(25%)	2(10%)	5(25%)
15.낯선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자 할 때	2(10%)	3(15%)	6(30%)	2(10%)	7(35%)
16.자기 자신, 가족,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3(15%)	3(15%)	4(20%)	3(15%)	7(35%)
17.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	0(0%)	3(15%)	7(35%)	3(15%)	7(35%)
18.길을 물을 때	1(5%)	2(10%)	8(40%)	4(20%)	5(25%)
19.버스, 지하철, 기차, 배, 비행기 등을 이용할 때	1(5%)	1(5%)	6(30%)	4(20%)	5(25%)
20.새 집을 구하고, 이사를 갈 때	1(5%)	6(30%)	4(20%)	2(10%)	7(35%)
21.은행 거래를 할 때(예금, 인출, 환전 해외 송금 등)	0(0%)	1(5%)	5(25%)	5(25%)	9(45%)



첫째, ‘직업과 관련된 의사소통’ 상황 및 기능 항목은 1번-9번, 14번 문항이다. 직장 내에서 접하게 되는 의사소통 상황과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언어 기능 뿐 아니라 직장 내에서는 아니지만 직업과 관련하여 처하게 되는 의사소통 상황과 그 상황에서 요구되는 언어 기능을 모두 포함한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직업과 관련된 의사소통 상황과 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매우 높았다.

둘째, ‘일상생활에서 필수적 의사소통’ 상황 및 기능은 10번-13번, 15번-19번, 21번 문항이다. 학습자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처하게 되는 상황 및 반드시 필요한 언어 기능을 포함한다. ‘자주 필요하다’와 ‘반드시 필요하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직업과 관련된 의사소통 상황과 기능 보다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낮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셋째, ‘일상생활에서 선택적 의사소통’ 상황 및 기능은 1개로 20번 문항이다. 학습자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의 선택 여부 또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접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의사소통 기능을 말한다. 여기에 대한 응답은 ‘가끔 필요하다’와 ‘반드시 필요하다’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선택적 의사소통 상황이기 때문에 응답자가 새집을 구하는 상황에 처했던 사람도 있고, 새집을 구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음을 나타낸다.

## 5. 결론 및 제언

### 5.1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체류 외국인 근로자 요구조사의 분석을 토대로 학습자의 특수성에 맞는 교육과정과 교재, 수업 등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은 국내 외 정규 교육기관에서 학습하는 일반적인 학습자를 주요 대상으로 연구해 왔고, 한국어 분야에서 가장 큰 학습자이며 잠재적인 학습자로 방치되어 온 국내의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연구가 미미하다.

교육과정에서 캄보디아인 학습자들은 개인지도 수업 방법을 선호하였고, 수업활동도 일 대 일 대화를 선호하였다. 문법, 말하기, 어휘, 듣기 영역은 많이 사용하는데 비해 쓰기나 읽기 영역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사가 한국어와 모국어를 병행하기를 원했고, 오류발생시, 즉시 공개적으로 수정받기 원하는 학습자가 많았다. 과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학습자가 많고, 평가방법으로는 회화 시험에 대한 응답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한 단계를 평균 9.5개월 안에 도달하기 원했고 나이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등급분류, 교사, 영역, 내용, 시수로 나뉘어 교육과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직업과 관련된 의사소통’,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의사소통’, ‘작업 현장과 관련된 의사소통’의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교수요목을 설계하였다. 교재에 관한 요구분석 결과 현재 사용하거나 사용했던 한국어 교재는 1-2권이었고, 교

재가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아주 높게 나타났다.

한국어 교재에 ‘모국어로 번역’과 ‘발음표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교재의 장점은 ‘문법 설명이 자세하다’가 가장 높았고, 교재의 단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직업 현장 어휘 습득’이 부족하고 ‘혼자 공부하기가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재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교수요목과 교재의 방안을 바탕으로 하고 학습자들의 요구 조사결과 가장 필요로 하는 ‘작업 현장 어휘’ 교육을 바탕으로 교재의 한 단원을 구성이 필요하다.

## 5.2 제언

첫째,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의 범주 하에 학습 단계별로 차별화된 교수요목의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학습자의 다양한 언어 수준을 반영할 수 있게 개별화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수요목의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목표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설계가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 입국 목적이나 입국 시 경험하게 되는 환경은 유사하지만, 한국에서의 정해진 근무 기간을 마친 후의 미래 설계는 제 각각이며 이에 따라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학습 목표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넷째, 학습자의 경제적·시간적 여건을 반영한 교수요목의 설계가 필요하다. 의사소통 능력이 통제된 상황에 대한 학습으로 유창해질 수 없으므로 상황 중심이나 직업적인 측면의 언어 교육은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가질 수 있다.

다섯째, 교수요목도 학습자별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주제도 특정 주제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의사소통능력 교육, 다국어 매뉴얼 개발, 상담·통번역 등의 지원 서비스와의 역할을 고려한 교수요목의 설계가 필요하다.

## 6. 참 고 문 헌

- [1] 정지윤.양광모..강경식(2011), “국내 외국인 취업실태 현황과 요구도 및 정책적 지원 방안”, 대한안전경영과학회.
- [2] 강현화(2002), 21세기 한국어 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 한국어 문화 어휘의 선정과 기술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사.
- [3] 고영근(197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 언어교육 6-1, 서울대 어학연구소.
- [4] 구선희·유승금(2008),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문화 교육방안 연구 : 전래동화를 활용하여”,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 [5] 구지은(2006), 『국제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 부산·경남 지역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6] 국립국어원(2005), 현대국어사용빈도조사, 국립국어원.
- [7] 국제한국어교육학회(2005), 한국어 교육론2, 한국문화사.
- [8] 김남주(201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9] 김선정(2006),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학회 창립 25주년기념 국제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이중언어학회.
- [10] 김수현(2008),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 연구, 이화어문논집 제26집.
- [11] 김승권·김유경·조애저·김혜련·이혜경·설동훈·정기선·심인선(2009),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법무부·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2] 김일란(2007),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수요목 개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3] 김정숙(2003), “통합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수 요목설계방안”, 한국어교육 14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19-143.
- [14] 빈동경(2011), 『학습자 요구분석을 통한 캄보디아 근로자 한국어 교육방안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 [15] 최혜진(2009),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와 한국어 교육의 과제”, 『한말연구』 25권, 한말연구학회.
- [16] 최혜진(2011), 『이주노동자를위한 한국어 교육개발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17]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연구, 통계 월보.
- [18]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통합서비스 참조.